

시시히
행복해지는 곳

2021년 소식지 서행 4호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성남시증장기청소년쉼터(남자)

목 차

01
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면 모든 일이 다 풀어진다.

인사말	4
법인소개	5
쉼터소개	6
연혁	7
쉼터운영현황	8

02
화양연화
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쉼터 내·외부 모습	10
학업 및 자립지원	11
교류활동 및 개별특기활동	12
수련활동	13
쉼터동정	14
시티문화재단 '내면치유 프로그램 3GO'	15
월드비전 공모사업 "쉼터 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종사자소진예방 프로그램"	16
성남위례동성당 '도담(도시락을 담다) 프로젝트' (퇴소생 도시락 지원)	16

03
고진감래
苦盡甘來
고생 끝에 오는 즐거움

농부의 꿈(입소생)	18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입소생)	19
나를 지탱해준 '사랑의 지지대'(퇴소생)	20
나눔의 시작, 이등병의 편지	21
감사합니다.	22
칭찬합니다.	23

04
명심불망
銘心不忘
마음에 깊이 새겨 오래 잊지 않음

봉사자 후기 - 남경준	25
봉사자 후기 - 박은영	26
종사자 이야기 - 조욱	27
신부님 이야기 - 김하중	28

05
유방백세
流芳百世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후원금 내역	30
후원물품 내역	31
봉사자 소개	32
후원안내/ 오시는 길	33

01 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면 모든 일이 다 풀어진다.

인사말
법인소개
쉼터소개
연혁
쉼터운영현황



인사말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
수정지구회 전 순 석

일상화가 되어버린 마스크의 답답함 속에서도 제가 2021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목표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습장소로 택했던 성남시청소년중장기쉼터(남자)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쉼터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바꿔게 해 주었는데요. 쉼터에서 마주했던 선생님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오고가는 신뢰와 따뜻한 정을 통해 나와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는 시설장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은 가정이 아닌 곳에서의 생활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세세하고 진심 어린 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는 밝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의 정당한 행동은 당당함이 되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울타리가 되곤 합니다. 청소년들이 당당함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청소년을 대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정과 사랑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스함이 가득한 선물처럼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시간에 대해 무심하게 지나치면 그 시간이 모여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청소년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배려하며 이끌어주실 때 누군가의 현재가 행복한 기대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시간을 재료로 하여 매시간 시간마다 색다른 양념과 향신료를 뿌려가며 맛을 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는 청소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도전정신을 가지고 시도했던 경험들이 모여져 더 멋진 꿈의 확장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늘 봄날이면 좋겠지만 아닌 날도 있지요. 봄이 따듯하고 아름답다 느껴지는 건 지난겨울의 찬바람과 앙상한 나무에서 돌아나는 작은 새싹 속에서 여름의 싱그러움과 가을의 결실이라는 기대감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쉼터에서의 실습이라는 짧은 만남 속에서 저는 사계절을 다 느끼고 온 듯합니다. 사계절 모두 소중하지 않은 계절이 없듯이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였습니다. 소중한 계절에 소중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준 쉼터의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중장기 청소년쉼터(남자)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 소중한 날에 전순석 드림

법인소개 '안나의 집'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8 안나의 집
- 설립일 : 1998년 7월
- 설립계기

안나의 집은 IMF이후 노숙인이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의식주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숙인급식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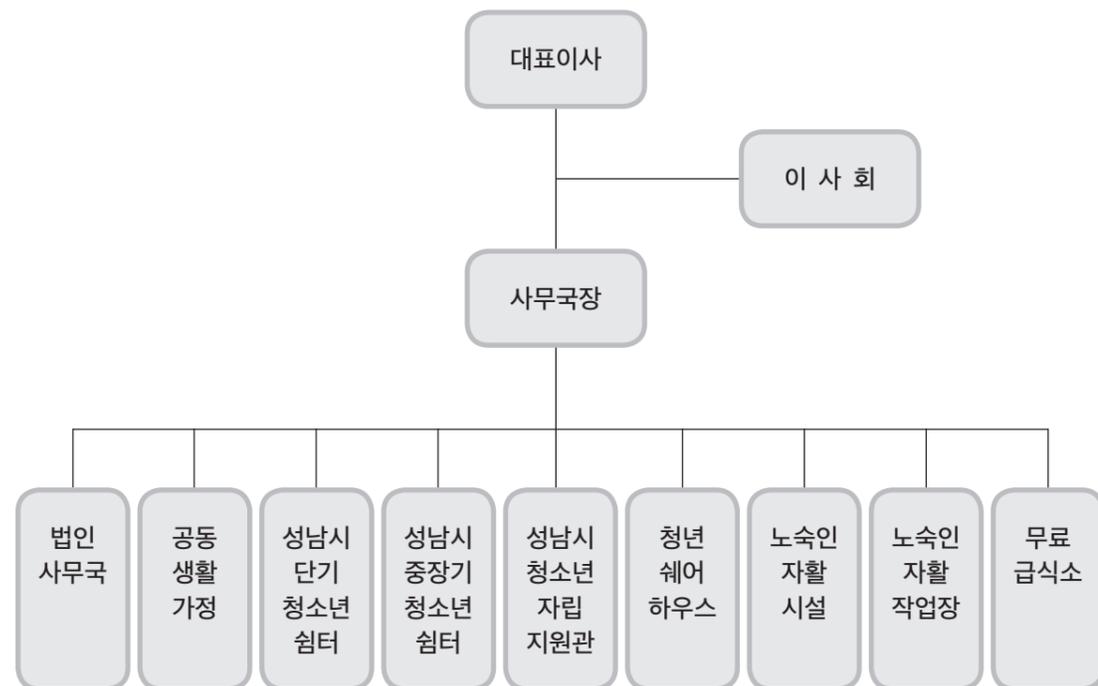
• CI소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다섯 개의 꽃잎과 그 가운데에 안나의 집을 상징하는 집의 형상이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는 안나의 집의 창립이념과 사랑, 봉사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꽃잎에 적용된 차분하고, 고운 초록 색상은 안나의 집에 따뜻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안나의 집' 조직도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운영방향

Mission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양성을 통한 사회공헌

Vision

1. 청소년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쉼터
2.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쉼터
3.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쉼터

중점 목표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보호
2. 학업형 : 학령기에 맞는 학습지원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3. 자립형 : 진로상담을 통한 자립계획 설정 및 자립 기술 훈련
4. 발달단계에 맞는 개별화 서비스 지원
5.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예방활동
6. 전문성을 갖춘 장기근속 종사자 양성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어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안정된 환경 안에서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개별, 집단상담, 부족한 학습지원, 문화활동, 진로지도,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이 함양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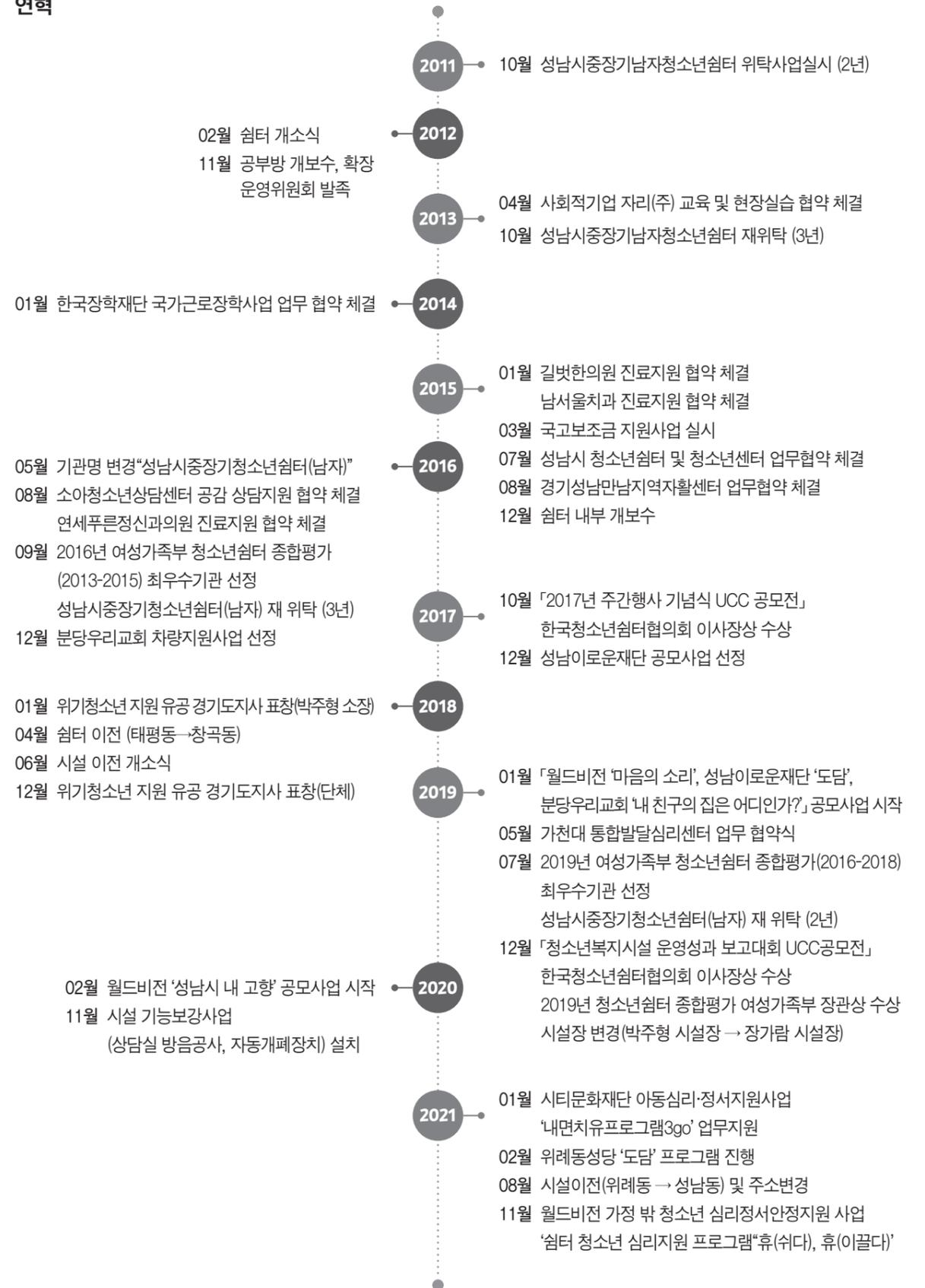
설립 및 운영주체

- 설 립 : 2011년 10월 1일 성남시 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위탁사업 실시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직원현황

성명	직책	업무내용
장가람	시설장	사업총괄, 대외협력, 후원자 관리
정재용	팀장	운영위원회, 관공서아웃리치, 직업체험, 퇴소생 사후관리
오정빈	보호·상담원	운영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문화활동, 학업관리
손석훈	보호·상담원	시설관리, 멘토-멘티데이, 홈페이지 게시물관리
현미숙	행정원	행정 및 후원관리
방철우	보호·상담원	야간생활지도, 인권교육, 수련활동
조 욱	보호·상담원	야간생활지도, 예절교육, 교류활동
김수환	보호·상담원	야간생활지도, 안전교육, 집단프로그램
이미자	취사원	주간식단 및 식사관리

연혁



2021년 청소년심터 운영현황

※ 사례수 (단위:명)

구분	입소생	사용자	합계
진행 사례수(실인원)	16	93	109
신규등록 사례수	6	93	99
연인원 사례수	3,548	151	3,699

※ 입소연령 (단위:명)

구분	남				합계
	13세 이하	14~16	17~19	20세 이상	
입소자	0	6	5	5	16
이용자	0	23	4	66	93
합계	0	29	9	71	109

※ 보호기간별 입소청소년 현황 (단위:명)

구분	보호기간					소계
	15일 미만	16~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입소자	0	0	2	0	14	16
사용자	93	0	0	0	0	93

※ 사후관리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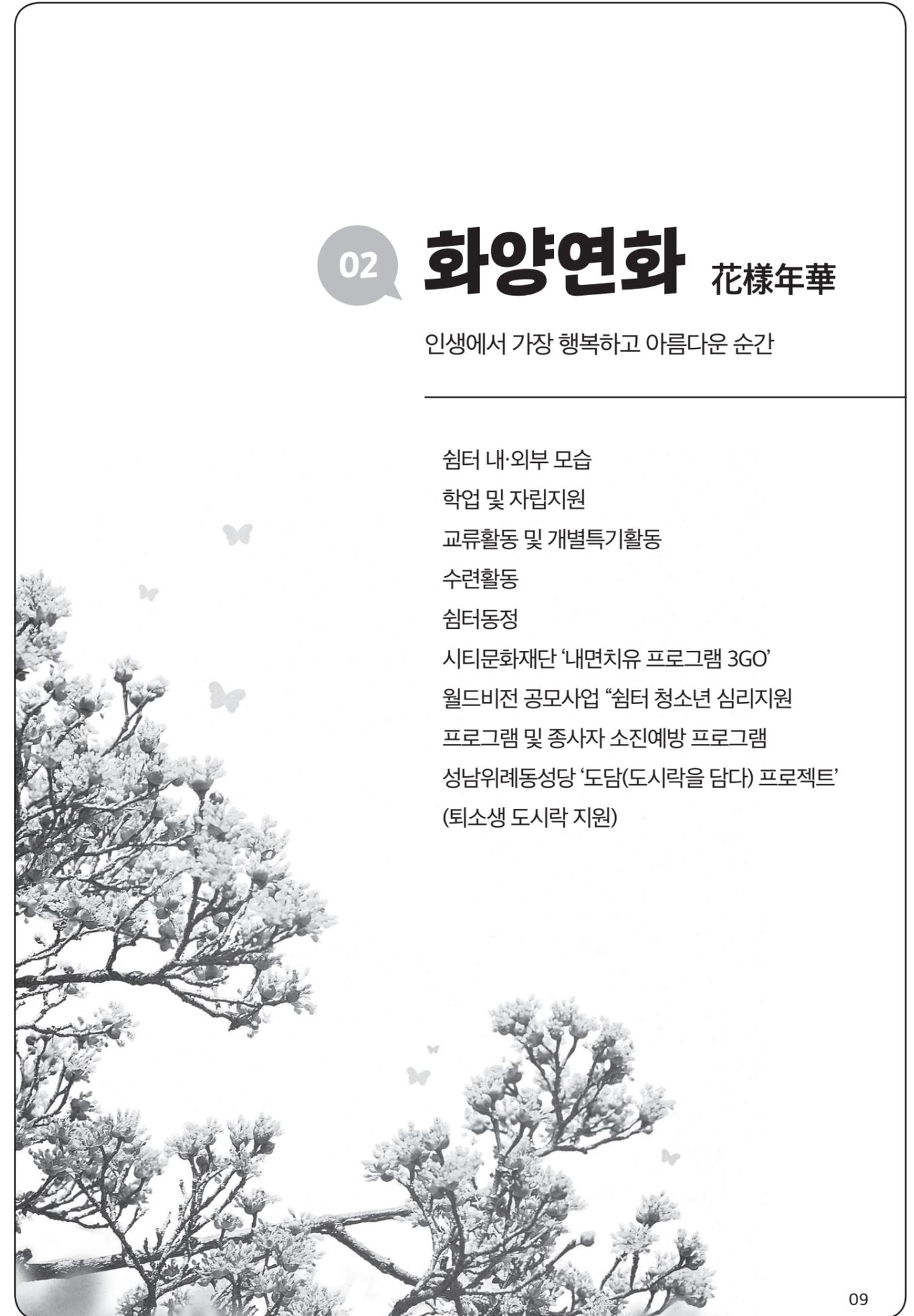
구분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서신상담	총계
합계	84	116	14	0	4	218

※ 퇴소현황 (단위:명)

구분	퇴소사유								합계
	가정 및 학교복귀	아동시설 의뢰	기타시설 의뢰	보호기간 만료	대안학교 입학	취업알선	강제퇴소	사회복귀 (자립육구에 의한 합의퇴소)	
합계	2	0	0	0	0	0	1	3	6

※ 상담지원현황

구분	처리유형				개입방법						합계
	단독	협의	위탁	미분류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서신상담	지원서비스	
본인(청소년)	5,081	0	0	0	1,695	164	29	0	4	3,189	5,081
학부모	86	0	0	0	23	62	1	0	0	0	86
부모외 가족	22	0	0	0	4	18	0	0	0	0	22
지도자	237	0	0	0	59	168	10	0	0	0	237
일반인	35	0	0	0	6	28	0	0	1	0	35
기타	8	0	0	0	5	3	0	0	0	0	8
합계	5,469	0	0	0	1,792	443	40	0	5	3,189	5,469



쉼터 내, 외부 모습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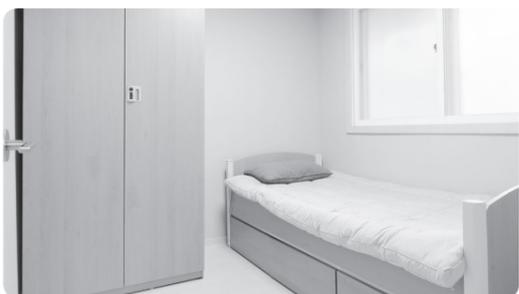
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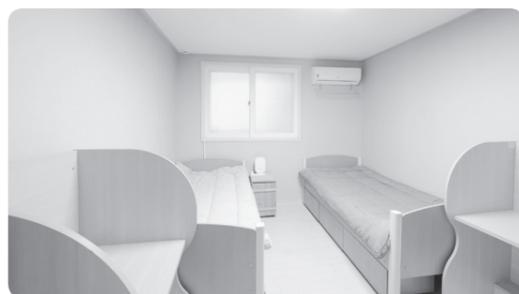
숙소(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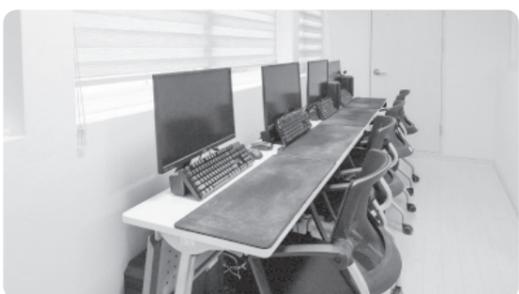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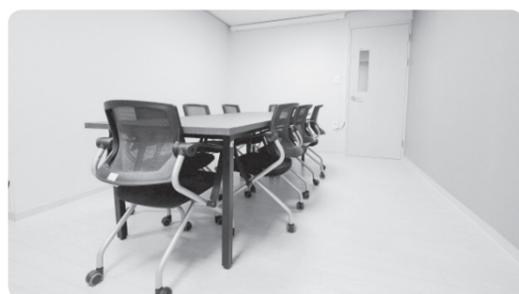
숙소(1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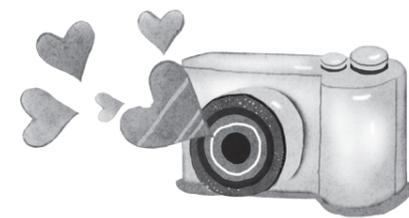
숙소(2인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학업 및 자립지원



수학학습(박성영)



영어학습(황태운)



입시학원 상담



음악치료(가천대 황혜진)



청년LH입주(상담)



쉼터퇴소청소년 주거지원(LH연계)



청년임대주택(성남시)



기관연계(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교류활동 및 개별특기활동



아침운동



조깅



복싱



탁구



풋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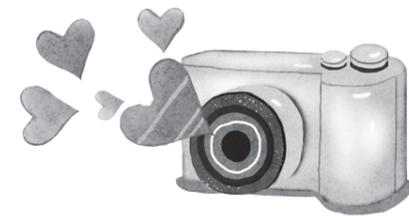
한강 라이딩



개인PT



개인PT



수련활동



추계소풍(한국산림복지진흥원)



동계캠프

쉼터동정



안나의 집 대학생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범죄예방성남협의회 수정지구 장학금전달식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모범청소년 "이사장 표창장"



감사패 전달(이경규 봉사자)



성남시 장영근 부시장 방문



입·퇴소생 간담회



슈퍼비전(홍강의 교수님)



종사자직무교육(애니어그램)

[시티문화재단]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사업 "Art For Healing" "내면치유 프로그램 쓰리GO"

- 공모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0. 12. ~ 2021. 10.(11개월)
- 참여인원: 19명(실인원: 7명)
- 지원금액: 10,000,000원
- 활동내용
 - 종합심리검사 실시
 - 개인 정서·심리치료
 - 집단상담프로그램(놀이치료, 연극치료, 미술치료 등)



[월드비전 공모사업]

월드비전 가정 밖 청소년 심리정서안정지원 프로그램 "쉼터 청소년심리지원 및 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 공모사업: 월드비전 가정 밖 청소년 심리정서안정지원사업(입소생)
- 사업기간: 2021. 11. 1. ~ 11. 30.
- 참여인원: 7명
- 지원금액: 1,450,000원
- 활동내용
 - 신규 입소생 초기상담비
 - 신규 입소생 종합심리검사
 - 신규 입소생 해석상담비
 - 기존 입·퇴소생 개인상담비

- 공모사업: 월드비전 가정 밖 청소년 심리정서안정지원사업(종사자)
- 사업기간: 2021. 9. 29. ~ 9. 30.
- 참여인원: 9명
- 지원금액: 1,450,000원
- 활동내용
 - 쉼터 종사자 소진예방프로그램 '힐링캠프'
 - 문화체험(석모도 자연휴양림 짙라인 5코스 체험)
 - 카페(푹 스파)
 - 집단슈퍼비전



월드비전(심리정서안정지원사업)



월드비전(종사자 리프레쉬)

[성남위례동성당 공모사업]

**청소년쉼터 퇴소생들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담(도시락을 담다) 프로젝트"**

- 공모사업: 위례동성당 배분사업
- 사업기간: 2021. 2. 1. ~ 12. 30. (11개월)
- 참여인원: 75명(실인원: 10명)
- 지원금액: 5,600,000원
- 활동내용
 - 중장기쉼터 "도담" 개별특방 채팅 및 희망 메뉴 접수
 - 월 2회 퇴소생 집 방문(주부식 및 기타식품 전달)
 - 근황 확인 및 생일 축하



도시락 준비(위례동성당)



도시락 준비(실무자, 퇴소생)



위례동성당 도시락지원



도시락 전달 및 사례관리

03 **고진감래** 苦盡甘來

고생 끝에 오는 즐거움

농부의 꿈(입소생)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입소생)
 나를 지탱해준 '사랑의 지지대'(퇴소생)
 나눔의 시작, 이등병의 편지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농부의 ‘꿈’

○○준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기쉼터에 입소한 지 3년째 되어가는 ○○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쉼터에 들어왔을 적에만 해도 제가 가장 어린 막내였는데 이제는 쉼터에서 많은 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쉼터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양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많은 일들을 당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쉼터에 입소했을 때는 이러한 경험과 사춘기인 나이가 겹쳐 선생님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선생님들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행동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른들과는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해 주셨고 때로는 저를 위해 힘들게 일하시는 와중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때로는 제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는 모습들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집에서 나와 중장기쉼터에 들어온 건 제 삶에서 큰 전환점이 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서 나와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난 것과 많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쉼터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쉼터에서 생활하는 중이고 제 목표를 위해서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 아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 꿈은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제가 해야 할 것도 많겠지만, 제가 쉼터에 있으면서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는 한 크게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는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나의 집 후원자가 되어 저처럼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에게 제가 받은 것처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와 비슷한 청소년들이 생길 것이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제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어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민

저는 노와 돛이 없이 강을 따라가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았어요. 강이 흐르는 대로 가만히 흘러갔습니다. 무료하고 뭔가 텅 빈 일상만이 있었습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는 배에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거친 물살로 인해 강에 빠졌죠. 일단 뭐라도 해보았어요. 살려주세요! 외쳐 보고 헤엄도 쳐보았죠. 그러다 물가로 떠밀려 왔습니다. 이게 제가 쉼터로 오기까지의 느낌입니다.

여러 번 쉼터를 입·퇴소하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쉼터에서도 친구와 싸우게 되어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저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에 오고 나서 우울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했던 저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중장기 선생님들은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학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얼떨결에 대학을 가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계속 걸었죠. 그러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커다란 계획은 없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그만 것부터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의 방황과 스트레스로 무거워진 내 몸을 가볍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로 돌아가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담당선생님을 찾아가고, 쉼터에서는 이런 저에게 헬스(PT)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식사를 조절하며 약 두 달 동안 12kg 정도를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도 주어져 하고 싶었던 카페에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도 모르고 손님이 오면 우왕좌왕 길 잃은 사람처럼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메뉴도 외우고 레시피대로 음료도 만들어보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신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내가 여기까지 혼자 올 수 있었을까?” 저를 지지해 주고 함께 걸어주시고 넘어져도 손 잡아 주시던 선물 같은 만남들. 자신의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함께 걸어주는 분들이 계신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탱해준 ‘사랑의 지지대’

○○현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지지대가 필요한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물론이거니와, 몸을 다쳤을 때, 또 우리가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지탱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물 또한 새끼일 때, 또는 다쳤을 때, 늙었을 때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지탱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필수로 여겨지는, 유년기 시절의 ‘부모’라는 지지대는 저를 받쳐주지 못할망정, 짓눌렀습니다. 저는 어머니 없이 자라 아버지에게 4살 때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 왔으며, 수년간의 수많은 가출 시도 끝에 중학교 1학년에 청소년 쉼터라는 곳을 알게 되어 ○○시 소재 모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들어간 이 쉼터에서조차 저는 갖은 폭력으로 짓눌렸고, 우여곡절 끝에 이곳, 안나의 집 중장기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 상태로 입소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이곳은 너무나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쉴 수 있는 곳, 마음 놓을 수 있는 곳, 나의 공간, 바로 ‘집’이었습니다.

안나의 집은 저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음식이면 음식, 각종 생필품, 용돈 등 물질적인 도움도 굉장히 많이 주었지만, 저는 그 어떤 도움보다도 정신적인 지지를 받은 부분에서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은 호의와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줄 수 있는 반면에 정신적인 도움은 ‘진심’을 담아 ‘전력투구’하지 않는 이상 그 도움이 상대에게 닿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안나의 집 선생님들은, 특히 중장기쉼터 선생님들은 매사가 전력투구였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닫힌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저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나의 집 선생님들과 신부님은 이런 목표가 생긴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저를 지탱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공대 순위 8위에 달하는 명문대 인하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아마 안나의 집 구성원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보어 감사 인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글로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나의 집에서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지지를 받을 차례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중장기쉼터 퇴소생이자 인하대학교 ○○공학과 21학번 ○○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시작

○○영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여름방학에 끝난 직후 중장기쉼터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쉼터 입소 전 가정에서 저는 매사에 강압적인 부모님과 생활에 지쳐있었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다른 사람들과 제 고민을 나눌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 힘들어하다 가출을 일삼게 되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여러 차례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방황하던 저는 쉼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마찰을 일으키기 일쑤였고 다른 입소생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20대를 앞두고 뚜렷한 목표 없이 방황하던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며 사랑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비록, 대학교에 진학하진 못했지만 쉼터의 보호 덕분에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항상 쉼터에서 보낸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길 소망하며 작게나마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던 저를 버텼던 직장인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안나의 집과 중장기쉼터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등병의 편지”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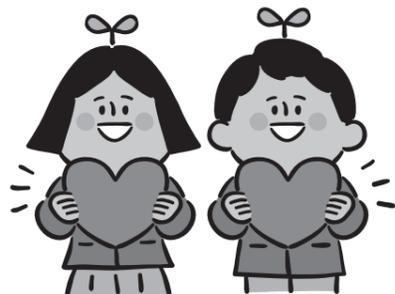
선생님들께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석이에요! 저는 힘들어요! 빨리 나오고 싶어요! 제설 작업은 안 했어요!
하루 세끼 잘 먹고 체력 단련을 하고 하니 체력도 많이 길러진 거 같아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총 훈련 재밌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재미없고 두 눈을 뜨고 쓰고나니 0발 맞았어요! 와서 많이 덤벼거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키는 거 다 잘하고 있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휴가 때 찾아뵙게요!
사랑해요~~~~~♡♡

군대에서 만난 친한 친구가 우표를 빌려줬어요! ♡

(그 친구가 바로 저입니다! ○○석이 정말 선한 친구예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애정을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1년간 감사했던 일 모음)

- # 포근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 # 한파에도 따뜻하게 있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 # 새해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 # 헌혈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홍장원 신부님에게 과외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LH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눈술 과외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매일 간식을 만들어 주시는 미자쌤에게 감사합니다.
- #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 # 어항을 넣고 물고기를 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수술을 무사히 끝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신부님께서 세뱃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 #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국가 근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다음 주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지원받아 감사합니다.
- #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고등학교 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 # 치과 진료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아침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야구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 심리검사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아플 때 병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자립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 정말 집 같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 # 재난지원금을 받아 감사합니다.
- # PT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 # 휴대폰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숙려 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스키캠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1년간 가족회의 시간에 나누었던 칭찬 메시지 모음)

- # 풋살을 하다 무릎을 다쳤는데 OO형이 상처를 치료해 주어 칭찬합니다.
- # 레몬에이드를 먹고 싶었는데 OO형이 직접 만들어 주어서 매우 고맙게 느끼고, 칭찬합니다.
- # 쉼터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OO을 칭찬합니다.
- #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OO을 칭찬합니다.
- # 심심할 때 나와 함께 놀아준 OO을 칭찬합니다.
- # 새로운 입소생들과 잘 적응하며 어울리는 OO을 매우 칭찬합니다.
- # 설거지가 많을 때 도와준 OO을 칭찬합니다.
- # 비싼 키보드를 빌려줬고, 곁에서 말도 걸어준 OO이 형을 칭찬합니다.
- # 최근에 입소한 뒤 쉼터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OO을 칭찬합니다.
- #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갔을 때 작은 다툼이 있었으나, 감정 조절을 잘하여 참은 OO 이를 매우 칭찬합니다.
- # 스키를 탈 때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도와준 OO을 칭찬합니다.
- # 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준 OO을 칭찬합니다.
- #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곁에서 많이 도와줘서 큰 도움이 된 OO형을 칭찬합니다.
- # 비빔면을 해줘서 참 고마웠고, 칭찬합니다.
- # 자신의 할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OO을 칭찬합니다.
- # 자기 할 일을 잘하는 OO형을 칭찬합니다.
- # 평소에 나를 많이 챙겨주고 가르쳐주는 OO형을 칭찬합니다.
- # 심심할 때 말 걸어주고, 같이 게임도 해준 OO형에게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 # 나를 많이 배려해 주는 OO형을 칭찬합니다.
- #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는 OO형을 칭찬합니다.
- # 나에게 옷을 주고 일주일 동안 나를 많이 도와준 OO형을 칭찬합니다.
- # 산책을 가자고 할 때 같이 가주고 말동무가 되어준 OO을 칭찬합니다.
- # 욕설하지 않는 OO을 칭찬합니다.
- # 친구로서 상담해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OO을 칭찬합니다.
- # 설거지 당번이 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바로 도와준 OO에게 고마웠고, 칭찬합니다.
- # 항상 챙겨주고 같이 라면을 맛있게 먹는 OO형을 칭찬합니다.
- # 동생들을 놀아주고, 챙겨주는 OO형을 칭찬합니다.
- # 같이 학원에 가주고, 놀아주고, 게임 해 주고, 야구도 해준 OO형을 칭찬합니다.
- # 서로 얘기도 해주고, 게임도 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준 OO을 칭찬합니다.
- # 항상 재밌게 해주는 OO을 칭찬합니다.
- # 요즘 들어 소리를 지르지 않는 OO을 칭찬합니다.
- #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를 한 OO을 칭찬합니다.



04

명심불망 銘心不忘

마음에 깊이 새겨 오래 잊지 않음

- 01 봉사자 후기 - 남경준
- 02 봉사자 후기 - 박은영
- 03 종사자 이야기 - 조욱
- 04 신부님 이야기 - 김하중



“희망”

남 경 준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올라온 남경준 신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사제 양성 과정의 일원으로 1년 동안 사목실습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 실습을 하기 위한 장소를 모색하던 중, 우연히 안나의 집 중장기쉼터와 연이 닿아 5월부터 12월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약 7개월가량 되는 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얻어 간 것을 이 글에서 솔직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이 있다면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중장기쉼터에 온 지 별로 안 되었을 때 한 아이에게서 들은 질문입니다. 신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저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무력했고, 상처받은 아이에게 차마 신학적인 이야기나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 같아도 믿지 않았을 거 같다”라고. 그리고 중장기쉼터에 있으면서 아이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은 상처들을 마주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이 없고, 일방적인 방향에서 비롯된 상처들을 보고 들으며 허무와 회의가 밀려들어 올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삶의 혼돈 속에서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 부정적인 질문 속에서 헤매고 가슴 아파할 때 제가 해답을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상처 받은 아이들의 모습에서였습니다.

쉼터에서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 쉼터에 왔을 때는 아이들에게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가야 할지 고민하던 저에게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주고,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조금의 사랑을 주어도 제가 준 사랑, 관심의 배로 아이들은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상처에 기인한 부정적인 행동들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런 행동 후에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금 일어나 일상을 풀어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에서 책임을 지려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을 통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뒤에는 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 아이들과 마찰이 생겨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시는 모습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풀어 가시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서로가 더 깊이 관계 맺음 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아이들이 보였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순수하게 진심으로 기뻐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이가 던진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해 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 7개월가량의 기간 중에 확실히 느낀 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함께 동반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삶의 혼돈에도 자신의 삶이란 여정 속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묵묵하게 그리고 담대히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반해 주고 힘이 되어 주는 삶. 그것이 신이 있다면 나에게 바라는 삶일 것이고, 그것이 신을 증명하는 길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소중한 체험들 가득 안겨준 중장기쉼터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따뜻했고 소중했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 안에서 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천사

강사명: 박은영
개인학습: 논술
장소: 성남시중장기청소년센터(남자)



2021년 1월 8일이 제가 중장기센터에서 봉사한 첫날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 다니다 그만둔 센터 학생이 마음에 걸려 학생이 원한다면 방문해서 논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세월을 뒤돌아보니 저는 센터에 봉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사랑을 하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준비해 간 간식을 먹으며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타민도 나눠 먹고 차도 마셨지요. 과일도 까서 접시에 담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 공간,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이든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현재의 어려운 상황도 솔직하게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경험이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이제 갓 10대 중반의 중학생이 더 많을까요, 50년을 넘게 산 제가 더 많을까요? 저는 그 학생 앞에서 저의 실수와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고백하였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침묵으로 제 부끄러운 상처를 덮어준 사람을 저는 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힘들고 애쓰는 모습으로 센터에 보내진 천사를 만난 저로서는 이 귀한 만남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사들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니까요.

일 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 태어난 생일을 축하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임무였다는 것을 나중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젤리와 생일 축하금, 그리고 생일 축하 손 편지. 이 세 가지 선물을 종이 가방에 넣어 센터로 전달하러 가는 순간 만큼 또 기쁜 시간이 있을까요? 작은 선물이지만 천사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하였습니다. 별을 눌렀는데 생일을 맞은 천사가 맨발로 나와 문을 열어 주었을 때 저는 감동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센터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후원금과 후원 물자, 공연 관람, 상담 치료, 퇴소생을 위한 도시락 봉사, 학습 봉사, 학부모 멘토 등 모든 프로그램에는 센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함께 곁에서 24시간 생활해 주시고 계시는 센터 시설장님을 비롯한 담당 선생님들과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선생님, 신부님, 학사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질풍노도의 시간이 어서 흘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장의 시간으로 채워져 나중에 꺼내어 미소 지으며 두고 보는 소중한 사진처럼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센터의 천사들을 날마다 승리케 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올해도 은혜 가운데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함께라는 소중함’

조 욱

활기찬 중장기센터, 아이들과 2021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네요. 1년 동안 아이들, 선생님,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아이들 대부분이 집에 머무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층 더 서로를 알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즐거웠던 순간들이 더 많았던 202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선생님들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 다. 대부분의 일정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개별적으로 수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과정 속 아이들과 실랑이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을 지켜보는 시간이 많아졌기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마치 매 순간이 학부모 공개수업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고민하며 지내는지 다방면으로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담임선생님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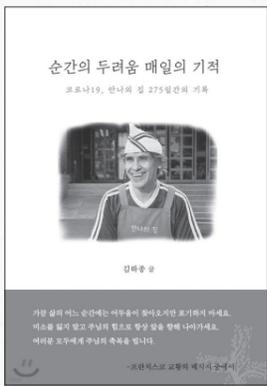
일상의 변화는 ‘함께라는 소중함’을 주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아이들 간에도 서로 간 기쁨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니 이전보다 가까워지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 선생님이 이런 모습이 있으셨네요?’, ‘이전엔 몰랐는데 유머 감각이 있으신 거 같아요’ 등 선생님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이전에 어색해하던 모습이 어느새 사라지고, 편안함이 가득해진 중장기센터가 된 것 같습니다.

집에 있다 지루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내려와 선생님에게 미주알고주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가 있는데 얼마나 순수해 보이고,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저희에게 생활 속 어려움을 주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주어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가 있기에 행복합니다.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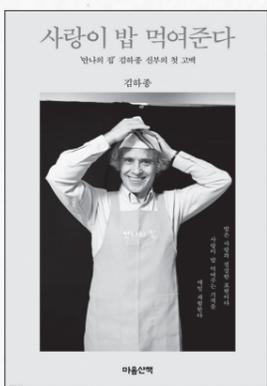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

안나의 집 청소년과 노숙인 여러분, 항상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삶의 어느 순간에는 어두움이 찾아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미소를 잃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가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부 다 나쁘고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나의 집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삶에 더 깊이 들어갈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고통은 신의 형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고 삶에서 중요한 것의 본질로 나아갈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의존하게 하며 불행하게 만드는 물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통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더 아름답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안나의 집에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전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나눔, 형제애 및 연대의 바이러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더 나은 세상을 원하고, 믿고, 만들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 中



「사랑이 밥 먹여준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안나의 집'이 문을 닫는 것이다. 굶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무료 급식을 하는 '안나의 집'은 기꺼이 문을 닫아도 좋겠다. 하지만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안나의 집' 문은 닫을 수 없다. 문을 열어두겠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끼입니다.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다이어트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 안나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한 끼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과 나눌 수 있음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30년을 하루처럼 살아온 김하종 신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사랑의 바이러스로 승화시킨

그의 고뇌와 기쁨은 고스란히 도시락에 담깁니다.

이렇게 날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끼가 나누어집니다.

- 사랑이 밥 먹여준다 中

05

유방백세 流芳百世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후원금내역

후원물품 내역

봉사자 소개

후원안내/ 오시는 길



♡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1월	엄아네스님 30,000/ 김윤자님 200,000/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300,000 / 죽전동성당 400,000/ 전정자님 10,000/ 서울모금회 1,000,000
2월	김윤자님 200,000/ 경기도 복지정책과 200,000/ 법사랑위원회 수정지구(법무부) 300,000 / 법사랑12기 원우회(법무부) 300,000/ 전정자님 10,000/ 죽전동성당 400,000
3월	김윤자님 200,000/ 죽전동성당 400,000/ 전정자님 10,000/ 권후자님 100,000
4월	김윤자님 200,000/죽전동성당 400,000/ 전정자님 10,000/ 권후자님 100,000
5월	김윤자님 200,000/ 이혁진님 140,000/ 죽전동성당 400,000/ 권후자님 100,000 / 전정자님 10,000/ 서울모금회 500,000
6월	김윤자님 200,000/ 죽전동성당 400,000/ 전정자님 10,000/ 권후자님 100,000 / 조영선님 420,000
7월	최희진님 150,000/ 죽전동성당 400,000/ 권후자님 100,000/ 전정자님 10,000 / 사회복지법인 밀알 6,000,000
8월	죽전동성당 400,000/ 신수경님 17,000/ 전정자님 10,000/ 권후자님 100,000
9월	유정영님 20,000/ 죽전동성당 400,000/ 오성진님 30,000/ 전정자님 10,000 / 경기도 복지정책과 200,000/ 법무부범죄예방연합회 300,000/ 박은영님 200,000 / 권후자님 100,000
10월	유정영님 20,000/ 죽전동성당 400,000/ 오성진님 20,000/ 김원빈님 20,000 / 권후자님 100,000/ 전정자님 10,000
11월	성남시장학회 450,000/ 유정영님 40,000/ 죽전동성당 300,000/ 전정자님 10,000 / 김원빈님 20,000/ 권후자님 100,000
12월	이혜선님 500,000/ 유정영님 20,000/ 남경준님 15,000/ 죽전동성당 300,000 / 박지성님 200,000/ 김윤자님(닭곰터) 200,000/ 송인령님 500,000 / 경기도 복지정책과 200,000/ 권후자님 100,000/ 김원빈님 20,000/ 김동윤님 100,000 / 전순석님 600,000

♡ 후원품을 보내주신 분들



1월	파리바게트 수진점(케이크)/ 홍장원님(사과즙, 사과, 햄버거 세트)/ 슬리필스테이션(시리얼) / 한국과학창의재단(서적)/ 박은영님(주부식)/ 돈까스 상대원점(등심돈까스)/ 박호순님(꿀) / 성남시청 교육청소년과(KF94 마스크)/ 좋은축산(고기)
2월	돈까스짬 상대원점(돈까스)/ 박은영님(삼겹살)/ 슬리필스테이션(친환경세제)/ 서점결(문화상품권 및 서적)/ 박호순님 (과일 및 과자)/ 이혁제님(치킨)/ 이기종님(치킨)/ 푸라달 성남위례점(치킨)/ 홍장원님(햄버거세트)/ 좋은축산(고기)
3월	황혜린님(롤케이크)/ 라라어스(유기농 세안비누)/ 홍장원님(치킨)/ 김현조님(도너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복 및 체육복)/ 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발열체크기, 마스크)/ 돈까스짬 상대원점(돈까스)/ 이기종님(과일 및 과자) / 박은영님(고기 및 과일 1박스)/ 마보(마음돌보기 영상앱)/ 좋은축산(고기)
4월	월드비전(덴탈마스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헤어제품)/ 돈까스짬 상대원점(돈까스)/ 홍장원님(과자)/ 성남시청 (화장품)/ 위례동성당(음료수)/ 이승철님(과일)/ 성남시청(신발)/ 박은영님(고기, 우유, 주부식)/ 좋은축산(고기)
5월	박은영님(과일, 입소생 생일선물, 주부식)/ 슬리필스테이션(생필품)/ 서점결(도서 및 침구류) / 김화순님(버타500)/ 버락떡볶이위례점(떡볶이)/ 돈까스짬 상대원점(돈까스)/ 굿잡취업센터(화과자)/ 한호순님(음료수)
6월	서울국제고등학교 원어민 선생님(가구 및 전자제품)/ 좋은축산(고기)/ 박은영님(입소생 생일선물, 주부식)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마스크)/ 홍장원님(햄버거 세트)/ 이기종님(간식류)/ 서점결(책 및 피복)/ 박호순님(꿀) / 돈까스짬 상대원점(돈까스)/ 가치습(천연비누)/ 크라이치즈버거 삼성역점(햄버거 세트)
7월	안수호님(도너츠, 파배기, 커피, 바나나우유)/ 최희진님(치킨)/ 돈까스짬 상대원점(돈까스)/ 전옥희님(커피) / 박은영님(주부식)/ 이매동 성당(감자)/ 장주호님(음료)/ 김예원님(샌드위치 및 콜라)/ 좋은축산(고기)
8월	박은영님(주부식)/ 이승철님(면마스크)/ 안수호님(도너츠)/ 홍장원님(햄버거 세트)/ 김화순님(과일) / 김혜미님(시리얼, 박카스, 커피)/ 돈까스짬 상대원점(돈까스)/ 월드비전(과일)/ 차지연님(광화문 연가 티켓) / 크리오(치약, 칫솔)/ 남경준님(도너츠)/ 신수경님(가구 및 주방용품) / 좋은축산(고기)
9월	한국상담복지개발원(KF94 마스크)/ 신수경님(청소기, 고기, 화장품, 피복, 파리솔 및 받침대 세트)/ 돈까스짬 상대원점 (돈까스)/ 오진희님(소갈비)/ 박은영님(도너츠, 간식류)/ 전옥희님(커피)/ 성남시청(핸드워시 외 2종)/ 최희진님(롤케이크)/ 남경준님(도너츠)/ 파파존스(피자)/ 김혜미님(스팸)/ 성남시청(화분)/ 유정영님(피복) / 좋은축산(고기)
10월	라라어스(유기농 비누)/ 돈까스짬 상대원점(돈까스)/ 비피에스(햄버거 세트)/ 홍장원님(햄버거 세트)/ 슬리필스테 이션(친환경세제, 생필품)/ 남경준님(치킨)/ 성남시여성지도자협의회(계절김치)/ 전순석님(햄버거 세트)/ 박은영님 (주부식, 아이스크림 케이크, 피복, 도너츠)/ 라이브러리 티티샵(음료)/ 돈까스짬 상대원점(돈까스)/ 좋은축산(고기)
11월	박여진님(스마트폰 및 이어폰)/ 박혜연님(피자)/ 이기진님(도너츠 및 피복)/ 박은영님(아이스크림 케이크, 도너츠, 주부식)/ 이상휘님(박카스)/ 신수경님(신발)/ 돈까스짬 상대원점(돈까스)/ 송인령님(쌀)/ 박혜연님(햄버거 세트) / 사랑의 열매(손소독제)/ 남경준님(치킨)/ 좋은축산(고기)/ 장주호님(음료 및 밤만주)/ 성남시청(KF94 마스크)
12월	성남시청(피복)/ 박은영님(과일, 도너츠, 피복)/ 최희진님(치킨, 양말)/ 슬리필스테이션(고구마 및 생필품) / 라라어스(친환경비누)/ OK마트 정육코너(양념돼지주물럭)/ 돈까스짬 상대원점(돈까스)/ 박혜연님(피자) / 이순영님(과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머그컵 체험 꾸러미)/ 서울 인보의 집(도시락, 피자, 케이크) / 좋은축산(고기)/ 새생명한복음위례교회(입소생 선물)/ 노숙인자활시설(이불)/ 소나무(독일빵) / 이기진님(피복, 상품권)/ 성남시청(상품권)/ 비피에스(입소생 선물 및 케이크)/ 홍장원님(햄버거 세트) / 서점결(간식 및 소모품)/ 김호정님(치킨 및 피자)

♡ 봉사자님 소개(2021)

- 학습봉사자** 국어-한호순님/ 독서논술-박은영님/ 영어-홍장원님, 최희진님, 황태윤님 / 수학-박성영님/ 기초학습-이미영님
- 상 담** 개인상담-홍장원님
- 시설유지보수** 이경규님
- 식사봉사** 위례동성당-강홍준님, 구선정님, 박영희님, 강행아님, 배노경님, 이지현님/ 개인-김혜미님, 박혜연님
- 음악치료** 가천대 음악치료대학원-나종한님, 황혜진님
- 프로그램지원** 직업체험&만들기 프로그램-김호정님, 김경선님/ 영화집단상담-홍장원님
- 멘토링프로그램** 박은영님, 한호순님, 이미영님, 최희진님
- 교육프로그램** 인권&성교육-김현정님/ 희망교육-이은영님
- 행정봉사** 남경준님



자원봉사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의 재능나눔 및 공부를 지속하기 위한 학습지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기타 행정보조 및 노력봉사를 해 주실 봉사자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품후원

먹거리, 피복, 문구 등 각종 생필품들이 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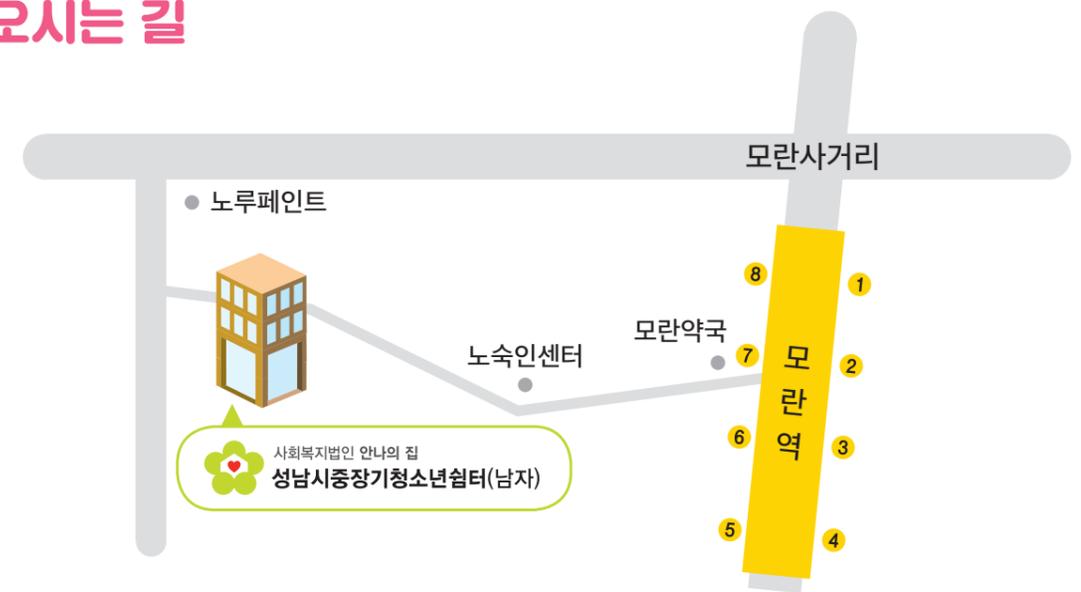


일반후원

쉼터를 이해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후원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중히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20-4514-21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오시는 길



- 지하철 모란역 7번 출구 하차
- 버 스 모란역 6번 출구 하차
3-1, 17, 17-1, 31-2, 31-3, 32, 32-1, 50, 52, 57, 60, 119, 200, 240, 320, 382

모란역 7번 출구에서 300m 거리에 위치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1번길 25

TEL: 031-752-9050 / FAX: 031-758-9050